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6, pp.189-220  
<https://doi.org/10.29212/mh.2020..116.18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자료소개]

# 이춘범의 6·25전쟁 관련 자료 컬렉션

주동완\*

1. 서론
2. 컬렉터와 컬렉션에 대한 소개
3. 이춘범 컬렉션 내용
4. 이춘범 컬렉션의 사료적 가치
5. 결론: 해외 자료들의 처리 방안에 대한 제언

## 1. 서론

금년 2020년은 6·25전쟁 70주년의 해이다.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각계각층에서 각종 학술회의와 전시회 및 공연 등이 개최되고 있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6·25전쟁 70주년 사업추

\* 코리안리서치센터 원장

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sup>1)</sup> 하여 국내외적으로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함께 “지켜낸 70년, 함께 만들어갈 한반도 평화”라는 비전을 갖고 “국내외 참전용사와 국민이 함께 하는 사업”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2)</sup> 또 동 위원회는 ‘기억’, ‘함께’, ‘평화’라는 세 단어를 슬로건으로 하여 “잊지 않고 보답하겠습니다.”(기억), “상처를 치유하고, 포용과 화합을 이루겠습니다.”(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의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평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실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내적으로는 (1)6·25전쟁 70주년 행사(6.25.)를 개최하여 참전용사에게는 전후 70년에 걸친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예우와 존경을, 국민에게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2)22개국 참전용사를 기억하는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7.27.)을 거행하여 유엔참전용사의 희생을 기억하고, 눈부신 경제 성장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을 최첨단 IT 기법으로 표현, 문화 강국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3)유엔의 정신으로!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11.11.)을 개최하여 세계 유일의 유엔묘지가 있는 부산을 향해 1분간 묵념하는 행사로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참전국과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다른 한편으로 (4)내 가슴 속 빛나는 불멸의 영웅! 감사 메달 수여식을 개최하여 참전용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감사 표명을 통한 예우 및 자긍심을 고취(6월)시킨다는 계획이다.<sup>3)</sup>

1) 현재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이다.

2)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웹사이트 <http://koreanwar70.go.kr/c/role>

3) 국내의 구체적인 행사계획으로는 ① ‘175,801, 꺼지지 않는 불꽃’, 호국영웅 다시 부르기 ② ‘국군전사자 70년 만의 귀환’, 미 DPAA 보관 중인 국군 유해 봉환 행사 ③ 보훈관서·지자체·군부대가 함께하는 지방기념식 및 위로연 ④ 기념일 법제화(‘20.3.5.) 후 첫 행사, ‘UN세계평화의 성지’ 선포 등이 있다.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참전국 현지 Thank U 행사’를 중심으로 각종 행사를 계획했다. (1)대한민국 셀럽과 함께하는 현지 감사 행사로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 높은 셀럽과 함께하는 감사행사를 통해 유엔 참전용사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참전’과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반기)하고 (2)참전국 현지 위로연과 함께하는 투어 음악회(‘음악, 바다를 건너다’)의 일환으로 오케스트라와 국악단이 4개국을 순회하며 유엔 참전용사와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며<sup>4)</sup>, (3)국외 참전 시설 건립 행사(인도 참전기념비 제막식)로 참전국 중 유일하게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없는 국가인 인도에 한국전 참전기념 조형물이 건립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제막식 개최 등을 지원(5월)하며, (4)유엔 참전용사 재방한 감사행사로 유엔 참전용사 및 유가족(650여 명) 등을 초청, 감사와 경의를 표명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상 홍보를 통하여 국가 이미지를 제고(6~11월)시키고, (5)유엔참전용사 기억·감사·평화 사진전을 인천국제공항에서 개최하여 유엔 참전용사의 참전 사진 및 재방한 행사 사진 등을 전시, 참전국 간 우호 증진과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5~11월)시키는 등의 주요사업을 계획했다.<sup>5)</sup>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 정부차원에서 주도하는 2020년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업들은, 이제는 90대의 나이에 들어선 대부분의 참전 용사들에 대한 기억과 감사 그리고 평화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내용들이 주요 사업으로 계획되고 있다. 즉, 6·25전쟁 자체에 대한 과거의 기억과 기록 보존보다는 평화를 향한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6·25전쟁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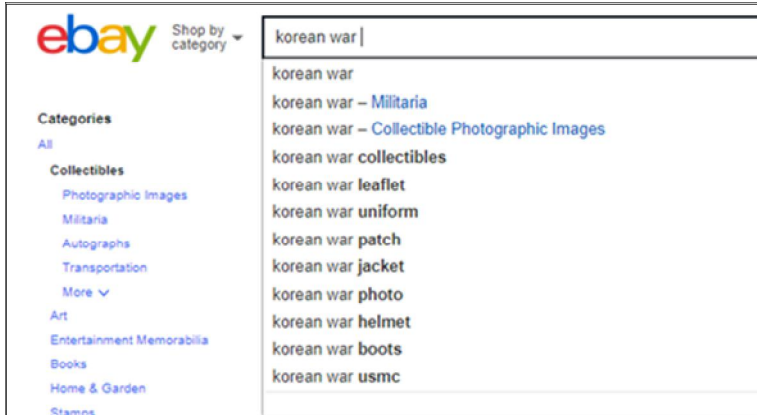
4) 구체적인 일정으로는 캐나다(6월 예정), 태국(8월), 미국(9월), 영국(11월 예정) 등.

5)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웹사이트 <http://koreanwar70.go.kr/c/role> ‘70주년 주요 사업’

사업들에 더해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참전 용사들이 간직해온 그들의 기억이 담긴 기록들에 관한 고려이다. 그 기록은 사진, 편지, 일기, 글, 영상, 그림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다. 하지만 참전 용사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다가 개인의 소멸과 함께 그 역사적인 자료들도 소멸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소멸되어 가는 자료들 가운데 일부는 그 참전 용사의 후손들에 의해 세상에 다시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묻혀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평화를 향한 미래 지향적인 기념사업들과 함께 참전 용사들의 기억과 기록들을 더 늦기 전에 발굴하여 보존하는 사업도 참전 용사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기억’하는 뜻 깊은 중요한 일들이 될 것이다.

6·25전쟁 참전 용사의 후손들에 의해 다시 세상의 빛을 보는 자료들은 대부분 인터넷 시장에 판매되는 물건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6·25전쟁 자료들을 많이 구입할 수 있는 곳은 ebay라고 하는 온라인 매매 및 경매 사이트이다. 이곳에서 Korean War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림 1]과 같이 6·25전쟁과 관련된 여러 물품들의 항목들이 나타난다.

<그림 1> ebay사이트에서 Korean War와 관련된 물품 항목들



ebay에 매매나 경매를 위해 나오는 6·25전쟁 관련 물품들은 6·25전쟁 당시 군인들이 사용했던 철모에서부터 시작해서 군복과 군화까지 다양하다. 매매 또는 경매를 위해 각 항목별로 ebay에 나와 있는 물품 수를 보면 다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4,115점이 나와 있는데<sup>6)</sup>, 특히 수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진 이미지 1,293점과 일반 사진 853점을 합해 사진 자료가 2,146점이나 된다. 이는 전체 물품 수 4,115점의 52.5%에 해당한다. 이처럼 특히 사진 자료가 많은 것은 6·25전쟁에 참전했던 미군들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카메라를 손쉽게 가지고 다니며 생전 처음 가 본 한국의 신기한 풍물과 전쟁 상황을 찍었기 때문이다.<sup>7)</sup> 그들은 찍은 사진을 미국으

6) 검색일 2020.5.22. 이 숫자는 매매 또는 경매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다.

7) 6·25전쟁에 참전했던 많은 미군들은 당시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참전했다고 하는 증언을 많이 남기고 있다. VOA. [뉴스풍경] 한국전 참전용사들 “한국전은 기억될 전쟁” 2019.6.28. 기사 중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의 증언. “여덟 살 미국인 소년의 이름은 제임스 N 부처. 누이와 형제를 도우며 살던 소년은 17살 청년이 되자 미 육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가 파병된 곳은 태어나 이름도 한번 들어본 적 없는 한국이란 나라였습니다. 제 7사단 17연대 폭스소대에서 복무했던 제임스 부처 중사는 1952년 10월 강원도 철원군의 제1 러셀 전투와, 이듬해 4

로 돌아가 인화하여 가족들에게 자신이 참전했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의 무용담을 들려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참전 용사들이 이제는 90대의 나이가 되어 많은 경우 이미 타계하여 그 후손들이 자신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가 1950년에서 1953년까지 참전했던 6·25전쟁 관련 물품들을 ebay에 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 1> 각 항목별 매매 및 경매 물품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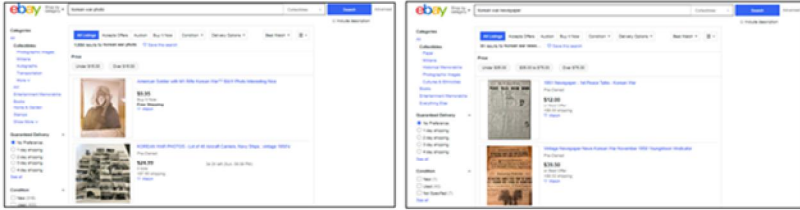
항 목	내 용	물품 수
Collectible Photographic Images	수집할 만한 사진 이미지	1,293
Leaflet	전단지	59
Uniform	군복	317
Patch	부대명찰	757
Jacket	자켓	380
Photo	사진	853
Helmet	철모	80
Boots	군화	35
USMC	미국 해병대 관련 물품	290
Newspaper	신문	51
계		4,115

본 논문에서는 이와 비슷한 경로로 미국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이민자이며 한미문화유산선양회의 이춘범 회장이 수집한 6·25전쟁 관련 자료를 소개하고 그 자료들의 사료적 가치와 어떻게 이러한 자료들을 보존할 것인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월 연천군에서 벌어진 포크 찰 전투에 투입됐습니다. 두 전투에서 총 2만여 명의 유엔군이 전사했고, 3천여 명의 미군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4977630> (검색일: 2020.5.23.)

<그림 2> ebay에서 검색된 6·25전쟁 관련 사진과 신문들



## 2. 컬렉터와 컬렉션에 대한 소개

이춘범 회장은 1946년생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69년 졸업과 동시에 영자신문사인 코리아 헤럴드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72년에 한국 방위산업체의 하나인 풍산금속으로 직업을 바꿨다. 풍산금속 무역부에서 1년을 근무한 후, 1973년에 개설한 풍산금속의 뉴욕지사로 옮겨 근무하다가 1974년 퇴직과 동시에 결혼하였다. 이 회장의 부인은 한국에서 간호사로 있다가 이 회장보다 1년 일찍 전문직 종사자 취업이민으로 미국으로 와서 뉴욕의 세인트 조셉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 회장은 결혼 후에 자영업을 하기 위해 보험과 부동산 판매면허를 취득했다. 보험과 부동산 판매를 한지 1년만인 1975년에 부동산 브로커 면허를 다시 따서 혼자서 자신의 비즈니스를 개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 회장은 평생 부동산업에 종사한 후 은퇴하여 지금은 뉴욕의 코리아타운인 플러싱에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한미문화유산 선양회를 설립하여 자라나는 한인 2세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사업에 뜻을 두고 있다.

<그림 3> 이춘범 회장과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 이 회장 자택 지하실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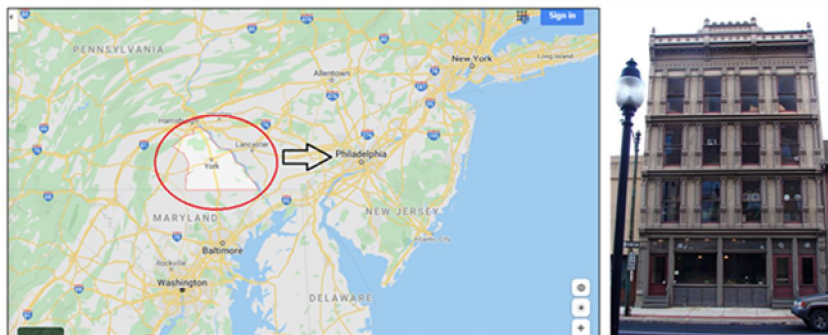
이춘범 회장은 1980년대 초부터 미국에 있는 한국 전통문화 관련 자료들을 취미로 수집하기 시작했다. 주로 한국 도자기와 한국식 전통 장, 밥상 그리고 간단한 생활 도구 등이었다. 6·25전쟁 이후 한국에서 생활했던 미군이나 미국인들이 미국으로 귀국할 때 가지고 온 물품들이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 우연한 기회에 6·25전쟁과 관련한 자료를 ebay에서 발견하고 6·25전쟁과 관련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구입하여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 회장이 6·25전쟁과 관련하여 ebay에서 처음 발견한 자료는 6·25전쟁과 관련한 사진 자료 한 점이었다. 그 자료를 팔려고 내놓은 사람에게 연락하여 더 자료가 있는지를 물어보니 그 사진 자료 판매자는 알아보겠다고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판매자는 시카고 트리뷴 신문사<sup>8)</sup>의 오래된 사진 자료들을 대신 팔아주는 브로커였다. 결국 그 브로커를 통해 시카고 트리뷴 신문사가 갖고 있던 6·25전쟁 관련 사진 자료들을 많이 구입할 수 있었다. 그 후에도 수시로 ebay를

8) 시카고 트리뷴(Chicago Tribune) 신문사는 1847년에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설립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신문사로 지금도 시카고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신문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https://www.chicagotribune.com>

검색하여 한국과 관련된 다른 많은 사진 자료들을 구입했다.

그러던 중 이 회장은 2007년경에 6·25전쟁과 관련된 신문 자료가 ebay 나온 것을 발견했다. 신문명은 더 요크 디스패치(The York Dispatch)였다.<sup>9)</sup> 1950년 6월 한 달치의 신문이 하드커버로 묶여진 신문 자료였다. 이 회장은 그것을 ebay 내놓은 사람을 수소문하여 관련 자료가 더 있는지 문의하여 1950년 6월 6·25전쟁 발발시부터 1953년 9월까지 6·25전쟁 전 기간의 더 요크 디스패치 신문 자료를 구입할 수 있었다.<sup>10)</sup>

<그림 4> 더 요크 디스패치 신문사가 소재하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요크 카운티의 위치와 신문사 건물



그 후 얼마 있다가 이 회장은 6·25전쟁 관련 신문 자료가 또

9) 더 요크 디스패치(The York Dispatch) 신문사는 1876년 펜실베이니아 주 요크 카운티에 설립된 신문사로 특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간신문으로 출판되고 있는 요크 카운티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이다. 특히 더 요크 디스패치 신문사 건물(15 and 17 E. Philadelphia St., York, Pennsylvania 소재)은 1887년에 건설되어 1978년에 국립 유적지 등록부에 등재된 고색창연한 건축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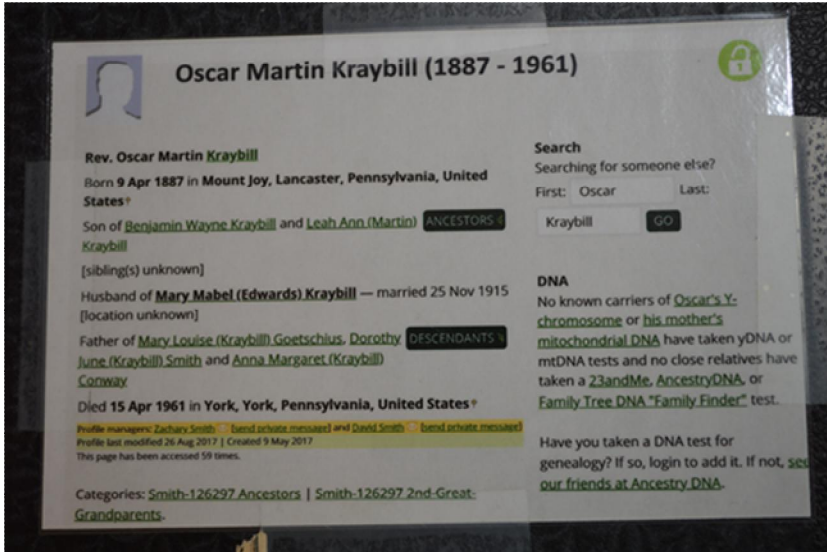
[https://en.wikipedia.org/wiki/The\\_York\\_Dispatch](https://en.wikipedia.org/wiki/The_York_Dispatch) (검색일: 2020.5.23.)

10) 이 회장이 소장하고 있는 1950년 6월부터 1953년 9월까지의 더 요크 디스패치(The York Dispatch) 신문 자료 가운데 1952년 2월, 3월, 9월, 10월, 그리고 1952년 12월 자료가 결본되었다.

ebay에 나온 것을 알았다. 이번에는 신문에서 6·25전쟁과 관련된 기사만 오려 스크랩북으로 만든 자료였다. 신문 기사 자료들은 대부분 더 요크 디스패치 신문의 기사였으며, 간혹 AP(Associated Press), UPI(United Press International), 소련의 TASS통신, 프랑스의 AFP통신사 등의 기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스크랩북을 ebay에 내놓은 사람은 젊은 미국인이었다. 역시 그 젊은이도 처음에는 스크랩북 한 권만을 ebay에 올려놨었다. 이 회장은 그 젊은이를 만나 자료가 더 있는지를 물어보고 1950.6.25.부터 1954.1.27.까지의 수십 권으로 된 6·25전쟁 관련 기사들의 스크랩북을 모두 구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회장은 그 젊은이에게 그 스크랩북들이 어디서 났는지를 물어봤다. 그 젊은이는 자신의 외증조할아버지가 수집한 자료라고 하는데 그 외증조할아버지의 이름조차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단지 그 젊은이는 자신의 외증조할아버지가 펜실베니아주 랭카스터 출신의 목사였으며 성이 크레이빌(Kraybill)이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이 회장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찾아본 결과 그 젊은이의 외증조할아버지가 오스카 마틴 크레이빌(Oscar Martin Kraybill) 목사였다는 것을 찾아냈다. 다음 [그림 5]에서 보듯이 크레이빌 목사는 1887년 4월 9일 펜실베니아주, 랭카스터시의 마운트 조이라는 타운에서 출생하여 1961년 4월 15일 펜실베니아주 요크 카운티에서 사망했다.

<그림 5> 이춘범 회장이 찾아낸 오스카 마틴 크레이빌의 기록



이 회장에 이어 필자가 조금 더 크레이빌 목사의 가계에 대해 찾아본 결과 크레이빌 목사는 메리 메이벨 에드워즈(Mary Mabel Edwards: 1888.7.29.~2004.5.30.)와 결혼하여 메리 루이스 크레이빌(Mary Louise Kraybill), 도로시 준 크레이빌(Dorothy June Kraybill) 그리고 안나 마가렛 크레이빌(Anna Margaret Kraybill) 등의 세 딸을 두었다. 크레이빌 목사는 아들이 없었던 관계로 결국 3명의 외손자와 10명의 외증손자만을 두었다.<sup>11)</sup> 이 10명의 외증손자 중 한 명이 그의 외증조할아버지인 크레이빌 목사가 3년여에 걸쳐 모아놓은 6·25전쟁 스크랩북을 ebay에서 판매를 한 것이다.

그런데 왜 크레이빌 목사가 3년여에 걸쳐 이토록 6·25전쟁에 관한 기록을 정성스럽게 모아놓은 것이었을까? 이춘범 회장은 아마

11) Wikitree 웹사이트. <https://www.wikitree.com/genealogy/Kraybill-Descendants-12> (검색일: 2020.5.22.)

크레이빌 목사의 아들 가운데 한국전 참전 용사가 있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하고 있었다. 하지만 필자가 더 찾아본 결과 크레이빌 목사는 세 딸만 두었기 때문에 한국전에 참전한 아들은 없었다. 그래서 필자는 혹시 사위 중에 한국전 참전 용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았다. 크레이빌 목사의 첫째 사위는 에멧 M. 괴치우스(Emmett M. Goetschius: 1916~2004)였고, 둘째 사위는 존 토마스 스미스(John Thomas Smith: 1924~2009)이었으며, 셋째 사위는 헤롤드 E. 콘웨이(Herold E. Conway; 1924~2006)이었다. 첫째 사위는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였지만, 둘째 사위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랭카스터 바이블 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목회자의 길을 걸었다. 셋째 사위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어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sup>12)</sup> 어쨌든 이 3명의 사위의 성(Last Name)인 Goetschius, Smith 그리고 Conway를 이준범 회장에게 제시하니 이 회장은 자신에게 6·25전쟁 스크랩북을 판매한 젊은이의 성이 스미스(Smith)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존 토마스 스미스라는 둘째 사위는 도로시 준 크레이빌이라는 크레이빌 목사의 둘째 딸과 결혼하여 3자녀를 두었다. 그리고 이들 3자녀 밑에서 모두 10명의 손자가 나왔다. 앞서 밝힌대로 이 10명의 손자 가운데 한 젊은이가 바로 스크랩북을 이 회장에게 판매한 사람이다.

---

12) 위 Wikitree 웹사이트.

<그림 6> 크레이빌 목사의 둘째 딸, 도로시 준 크레이빌과  
둘째 사위, 존 토마스 스미스 목사



6·25전쟁과 관련된 더 요크 디스패치 신문을 비롯한 여러 신문과 통신사들의 기사를 3년여에 걸쳐 수집하여 여러 권의 스크랩북을 잘 만들어 놓은 오스카 마틴 크레이빌 목사가 왜 그러한 자료를 만들어 놓았는지 그 이유를 본 연구에서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크레이빌 목사의 가계를 분석하여 그 스크랩북이 어떠한 경로로 이춘범 회장에게까지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대강의 경로를 알게 되었다.

그밖에 이 회장은 6·25전쟁과 관련된 더 모빌 레지스터(The Mobile Register), 데일리 뉴스(Daily News), 보스턴 선데이 헤럴드(Boston Sunday Herald) 등의 신문 기사들과 여러 가지 단편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다. 아울러 일제 강점기 때의 조선의 모습과 관련된 사진 자료와 구한말 시대와 관련된 신문 자료, 포스터 등을 소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회장은 한국의 전통 고가구

와 도자기 등도 수십 점 수집했으며, 특히 한국의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등 대통령들의 친필 글씨 액자와 한국의 동양화 및 민속 유물들도 다수 소장하고 있다. 필자는 2020년 3월 2일 이춘범 회장 댁에서 이 회장을 인터뷰하여 유튜브 동영상으로 만들었다.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이춘범 회장 인터뷰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다. 다음 절에서 이춘범 컬렉션의 몇몇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이춘범 컬렉션 내용

#### 가. 6·25전쟁 관련 사진 자료

이춘범 회장이 수집한 대부분의 6·25전쟁 관련 사진 자료들은 흑백사진인데, 이 회장은 이 사진 자료들을 유리 액자에 넣어 보관하고 있다. 액자는 큰 액자와 작은 액자 두 종류가 있는데 큰 액자에는 다음 [그림 7]과 같이 하나의 긴 설명서에 관련된 사진들을 모아 하나의 액자에 넣어 놓았고, 또 어떤 사진들은 각각의 설명서가 붙어 있기도 했다. 큰 액자에는 보통 6~8장의 사진들이 모아져 있었으며, 작은 액자에는 사진이 보통 한 장씩 넣어져 있다.

<그림 7> 이춘범 회장 소장 6·25전쟁 관련 사진 자료



작은 액자의 사진 자료들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그 액자 개수를 파악해보면, ①주로 북한과 중공군 전쟁 포로들 사진 액자가 20개, ②피난민 행렬 및 피난민들의 모습 사진 액자가 22개, ③전투 장면 사진 액자가 46개, ④항공기 폭격 관련 사진 액자가 51개, ⑤

휴전 회담 관련 액자가 45개 그리고 ⑥미 분류된 액자가 169개 정도 있다. 특히 휴전 회담 관련 사진은 휴전 회담 초기의 모습부터 마지막으로 휴전 협정문에 서명하는 모습까지, 거의 휴전 회담 전 과정의 사진들이다.

큰 액자의 사진 자료들은 주로 ①6·25전쟁 난민, 고아들 사진, ②전쟁 중에 예배를 보는 군인들, ③홍남 철수 사진, ④전투 장면, ⑤피난민 행렬 등이다. 이 사진 자료 액자들이 보관된 방법을 보면, 큰 액자들은 이 회장의 지하실 벽면에 걸려 있거나 불박이장에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고 작은 액자들은 [그림 8]과 같이 선반 위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다. 이춘범 회장이 수집한 6·25전쟁 관련 사진 자료는 대략 600장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사진 자료들은 전투하는 모습에서부터 폐허화된 전장의 모습 등 6·25전쟁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8> 선반 위에 쌓여져 있는 작은 액자들의 사진 자료들



## 나. 6·25전쟁 관련 신문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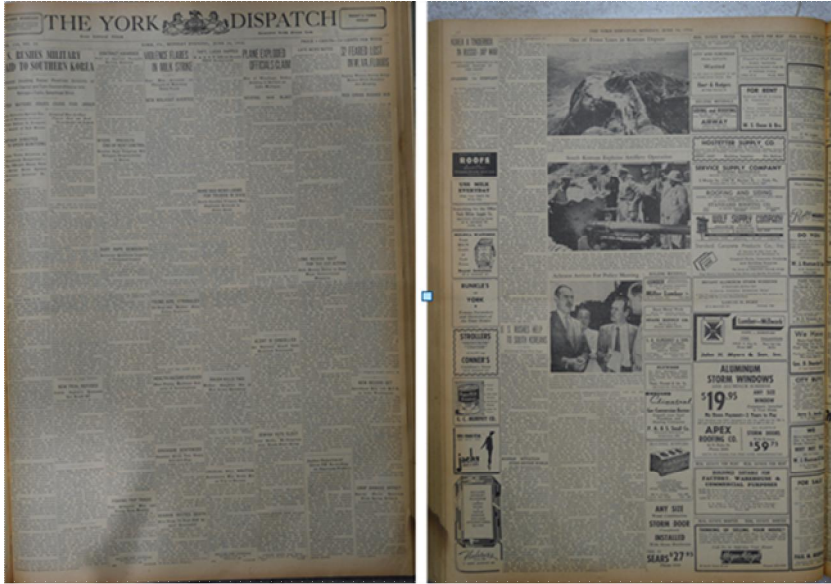
이춘범 회장이 수집한 6·25전쟁 관련 신문 자료는 크게 3종류로 구별된다. 첫째는 더 요크 디스패치(The York Dispatch) 신문 전체 모음이다. 1950년 6월부터 1953년 9월까지 가운데에서 5개월을 제외한 매일매일의 모든 신문이 원래의 모습 그대로 두꺼운 표지에 채본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신문 자료는 단순히 6·25전쟁 관련 기사 자료뿐만 아니라 그 당시 미국 내 사정과 세계 정치에 대한 정보들을 다 살펴볼 수 있다.

6·25전쟁의 발발에 대해 더 요크 디스패치에 처음 실린 1950년 6월 26일자<sup>13)</sup> 신문의 1면 제목은 ‘U.S. rushes military aid to southern Korea’(‘미국. 한국에 군사 원조를 서두르다.’)으로 6·25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미국 정부는 군사적 원조를 서둘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날 신문 안쪽 기사에서는 한국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소개를 하고 있다. 그 다음 날짜인 6월 27일자 더 요크 디스패치 신문의 1면 톱뉴스도 ‘Truman orders armed forces to aid Korea.’ (트루먼은 한국을 돕기 위해 군대에 명령내리다.)라고 하여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군사행동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려 했지만, 바로 옆 기사는 ‘Congress split on Korean War.’ (의회는 한국 전쟁에 대해 의견이 나뉜다.)라고 하여 미국 내 정치상황은 6·25전쟁에 대한 미군의 참전을 초기부터 전적으로 지지한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

13) 더 요크 디스패치 신문은 당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발행되고 있어서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 일요일자 신문은 발행되지 않았다.

<그림 9> 1950년 6월 26일자 더 요크 디스패치지에 실린  
6·25전쟁 발발에 대한 첫 보도



<그림 10> 여러 면에 걸쳐 6·25전쟁 상황에 대해 자세히 보도한  
1950년 6월 27일자 더 요크 디스패치 신문



이렇게 매일매일의 더 요크 디스패치 신문 전체가 한 달씩 묶여

져 잘 제본된 신문 자료가 약 3년 3개월 치가 수집되어 있다. 이 자료는 더 요크 디스패치 신문사에서 신문사 보관용으로 제본하여 보관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동일한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신문사의 보관용 자료가 어떤 경로로 ebay에서 판매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중간에 5개월 치가 결본된 것 이외에 거의 모든 신문이 완전한 모습으로 보관되어져 있다가 마침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던 이춘범 회장 손에 들어온 것은 역사적인 자료 보존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로 여겨진다.

<그림 11> 월별로 제본된 더 요크 디스패치 신문



이춘범 회장이 소장하고 있는 6·25전쟁과 관련된 두 번째 신문 자료는 오스카 마틴 크레이빌 목사가 스크랩북으로 만들어 놓은 6·25전쟁 관련 신문 기사 자료들이다. 이 스크랩북 자료는 1950.6.25. 부터 1954.1.27.까지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더 요크 디스패치 신문을 중심으로 하여 AP, UPI, TASS, AFP 등의 기사들을 추가하여 6·25전쟁 관련 신문 기사들만을 모아 놓은 자료이다. 이 스크랩북 자료 역시 두꺼운 표지의 바인더로 되어 있어서 보존 상태가 좋다.

<그림 12> 오스카 마틴 크레이빌 목사의 6·25전쟁 관련 신문 기사 모음 스크랩북



크레이빌 목사는 가위로 오린 신문 기사 자료들을 2개의 구멍이 뚫린 종이에 하나하나 완전하게 풀로 붙여 놓았다. 그리고 뚫린 구멍마다 구멍이 찢어지지 않게 구멍 보조지를 덧대어 자료 유실을 막았다. 크레이빌 목사는 신문 기사들을 바인더에 낱자 순서대로 끼어놓고 각 바인더 표지에 낱자순으로 일련번호를 매겨 놓아 자료를 찾기 쉽게 해놓았다. 이렇게 스크랩북의 자료 보존 상태를 보면 크레이빌 목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6·25전쟁 관련 신문 기사 자료를 모았는지를 볼 수 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이유로 크레이빌 목사가 이렇게 6·25전쟁 관련 신문 기사들을 정성껏 모았는지 알 수 있다면 이 스크랩북 자료들과 함께 좋은 스토리가 만들어

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춘범 회장은 크레이빌 목사의 스크랩북들을 한국 전통 장 속에 [그림 13]과 같이 보관하고 있다.

<그림 13> 오스카 마틴 크레이빌 목사의 6·25전쟁 관련 신문 기사 모음 스크랩북 보관 상태



이춘범 회장이 소장하고 있는 6·25전쟁 관련 세 번째 신문 기사 자료는 더 모빌 레지스터(The Mobile Register), 데일리 뉴스(Daily News), 더 보스턴 헤럴드(The Boston Herald) 신문들에 게재된 6·25전쟁 관련 기사들이다. 더 모빌 레지스터 신문 자료만 1950년 7월 한 달치의 신문이 묶여져 있는 자료집이고 나머지 신문 기사 자료들은 낱장으로 되어 있다. 이 낱장으로 된 신문 기사들은 주로 6·25전쟁 당시 중요한 순간들에 관한 자료들이다. 낱장으로 된 신문 기사 자료들은 대부분 커다란 유리 액자에 넣어서 보관되고 있다.

<그림 14> 더 모빌 레지스터 신문 자료 모음



<그림 15> 6·25전쟁 관련 기타 신문 자료들



그 외 이춘범 회장이 수집한 6·25전쟁과 관련된 자료 가운데 신문 자료는 아니지만 아주 가치 있는 하지만 슬픈 자료도 있다. 해리 트루먼 당시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한국전 참전 용사의 전사 통지서이다. 윌러스 M. 아놀드 일등병이 6·25전쟁에서 몰려서지 않고 용감히 싸우다가 1950년 7월 20일에 전사했다는 통지서이다.

6·25전쟁이 발발한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윌러스 M. 아놀드 일등병은 자신이 알지도 못 했던 나라의 자유를 위해 싸우러 왔다가 이름 모를 한국의 어느 골짜기나 벌판에서 고향의 가족을 그리며 전사했을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도양양했던 어느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오빠였고, 형 또는 동생이었을 아놀드 일등병이, 한 장의 전사 통지서와 함께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것을 본 가족들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그림 16> 6·25전쟁 전사통지서



### 다. 기타 자료들

이춘범 회장이 소장하고 있는 기타 자료들은 ①이승만 대통령 관련 사진, 특히 2대 대통령 취임 사진, ②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 사진, ③박정희, 김대중 대통령 관련 사진 그리고 ④4.19혁명 관련 시위군중들이 데모하는 사진, ⑤1975년 국립극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는 순간의 문세광 관련 사진 등등 한국 현대 역사의 한 장면이 담겨있는 다양한 주제의 사진, 포스터 자료들이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 관련 사진 자료들이 많은데 그 중 특별한 자료 가운데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1907년 조지 워싱턴 대학을 졸업할 당시 인쇄된 졸업식 참석 초청장이다.

<그림 17> 한국의 현대사 관련 자료들



이춘범 컬렉션에는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진작가들이 찍은 한

국의 풍경 사진들과 한국과 관련된 일본의 엽서들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경기도 수원지역의 사진들이 많이 수집되어 있다. 또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한국의 마라토너 손기정 선수가 우승을 하고 받은, 손기정 선수 사진이 포함된<sup>14)</sup> 우승 인증서도 보관되어 있으며, 외국 선교사들과 관련된 사진 및 평양 전도대회 사진도 여러 장 수집되어 있다.

<그림 18> 한국 근대 일제 강점기 때의 자료들



그 외에 기타 신문 자료로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조선시대의 자료로는 1894년 프랑스에서 발행된 신문 자료도 있다. 1894년 8월 12일과 8월 25자로 발행된 르쁘띠 빠리지앵(Le Petit Parisien)이란 신문의 일요일 부록판으로 발행된 타블로이드판 신문이다. 이

14)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 사건(日章旗抹消事件)은 1936년 8월 13일자 동아일보의 지방판 조간 2면 및 조선중앙일보의 4면, 다시 동아일보의 8월 25일자 2면에 1936년 하계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의 우승 사실을 보도하면서 일장기를 삭제한 사건이다. 이후 동아일보는 일제에 의해 8월 29일자부터 무기 정간 처분을 당하면서 1920년 4월 창간된 이래로 네 번째로 무기 정간이었다. 8월 13일자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를 지운 사진을 실었던 조선중앙일보[1]에서는 9월 4일에 자진하여 ‘근신의 뜻을 표하고 당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휴간한다’ 운운의 사고(社告)를 게재함과 동시에 휴간에 들어갔지만 신문사의 내부 분열로 결국 신문을 폐간하였다. [https://ko.wikipedia.org/wiki/일장기\\_말소\\_사건](https://ko.wikipedia.org/wiki/일장기_말소_사건) (검색일: 2020.5.25.)

신문은 여러 페이지의 전면에 걸쳐 당시 조선의 국왕과 조선의 풍습 등을 보여주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보여주고 있다.

<그림 19> 르 뵈띠 빠리지앵(Le Petit Parisien) 신문에 게재된 조선의 모습



<그림 20> 조선시대 사진 자료와 도자기 및 서예작품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춘범 회장은 1980년대부터 미국 내에 있는 한국 관련 자료와 유물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여 여러 점의 도자기와 한국식 전통 가구 및 생활 집기 등을 소장하고 있다. 또 한국

의 역대 대통령들의 친필 글씨 액자와 동양화, 병풍 등 한국 전통 예술 작품들도 다양하게 수집해왔다. 이러한 모든 자료들은 이춘범 회장의 집의 곳곳을 장식하고 있으며 지하실에 빼곡히 들어차 있어 집 전체가 하나의 수장고요 전시장 같다.

#### 4. 이춘범 컬렉션의 사료적 가치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6·25전쟁 관련 사진 및 신문 자료들을 중심으로 수집된 이춘범 컬렉션은 우선 그 양적인 면에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먼저 600여 장에 달하는 사진 자료와 6·25전쟁 전 기간에 걸쳐 있는 2종류의 신문 자료 및 그 외 6·25전쟁 기간 중 중요 사건들을 다룬 다른 언론사들의 기사 자료들은 그 양이 6·25전쟁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하다.

더구나 질적인 면에서도 이춘범 컬렉션은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먼저 사진 자료의 경우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신문사에서 체계적으로 모아진 사진 자료들이어서 모든 사진들이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다. 즉, 거의 모든 사진 자료들이 그 사진이 언제 어디서 찍혔는지에 대한 설명서를 갖고 있어서 역사적 사료로서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다. 또한 6·25전쟁 전 기간에 걸친 더 요크 디스패치 신문 자료는 당시의 미국 사회와 나아가 전 세계의 뉴스를 함께 볼 수 있어서 시대적 맥락 속에서 6·25전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크레이블 목사가 스크랩북으로 만든 6·25전쟁 관련 신문 기사들만을 모은 자료는 6·25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시계열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어 6·25전쟁에 관해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더 요크 디스패치 신문 자료가 6·25전쟁

을 횡적으로 분석 가능하게 해준다면 크레이빌 목사의 신문 자료는 6·25전쟁을 종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6·25전쟁 시기의 중반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휴전협정에 관한 이춘범 컬렉션의 사진 자료들은 휴전협정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습이 망라되어 있어서 그 휴전협정 사진 자료들만 갖고도 훌륭한 아카이브의 가치를 지닌다. 이런 면에서 이춘범 회장의 6·25전쟁 관련 자료 컬렉션은 양적, 질적인 면에서 모두 우수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춘범 컬렉션의 사진 및 신문 자료들은 상태가 아주 양호하다. 사진 자료들도 대부분 시카고 트리뷴의 전문 기자들이 찍은 것이 대부분이고 신문 자료들도 더 요크 디스패치 신문사와 오스카 마틴 크레이빌이라는 한 목사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잘 정리 정돈되고 단단한 커버의 바인더에 잘 보관되어져서 모든 자료들을 시각적으로 파악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 5. 결론: 해외 자료들의 처리 방안에 대한 제언

본 논문에서는 이춘범 회장의 6·25전쟁 자료에 대해서만 소개하고 그 사료적 가치를 논했지만, 그 외에도 현재 미국 내에는 많은 6·25전쟁 관련 자료들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언급한 판매 또는 경매를 위해 현재 ebay에 나와 있는 4천여 점에 달하는 6·25전쟁 관련 자료와 유물들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또 미국 내 어느 지역이든지 차를 몰고 가다가 앤틱 숍(Antique Shop)이라고 써어 있는 골동품 가게를 들어가 보면 예외 없이 수많은 6·25전쟁 관련 자료와 유물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

한국전 참전 미군 용사들이 각 가정에 갖고 있는 양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이러한 참전 용사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은 그들이 직접 사용했던 것들이어서 자료들 하나하나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훈장 하나, 사진 하나하나에 참전 용사들의 전장에서의 기억이 담겨 있는 유물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와 유물들에 대해 그동안 한국과 미국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전쟁기념관이나 박물관에 가보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기록들이나 대형 무기류 또는 보존 상태가 아주 좋은 유물들만 주로 전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쟁은 국가적인 과제인 동시에 개인적인 실체의 경험이다. 그러한 실제 경험 속에서 가져온 유물들에 대한 각 개인의 기억은 전쟁을 이해하는데 더 소중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참전 용사들의 개인적인 유물들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수집과 보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25전쟁 참전 용사들의 개인적인 유물을 수집 및 보존하려고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6·25전쟁 관련 자료와 유물들을 꼭 한국으로만 모두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미국 내 현지에 그 자료나 유물과 관련된 참전 용사와 함께 있는 것이 그 가치를 더 나타내고 의미를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이렇게 개인들이 소장한 6·25전쟁 관련 자료들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이춘범 회장도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본인이 소장한 모든 6·25전쟁 관련 자료들을 전시할 공간만 허락된다면 모두 기증하여 한인 2세들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볼 수 있게 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어렵다. 따라서 이춘범 컬렉션을 비롯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이

소장하고 있는 6·25전쟁 관련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 전시할 수 있는 공간, 즉 6·25전쟁기념관 또는 박물관을 뉴욕의 한인 커뮤니티 차원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커뮤니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뉴욕에 상주하는 한국계 기업들의 재정적 지원도 기대할 수 있고 한국 정부 나아가 미국 정부의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미국 참전용사들이나 그 후손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자료들을 기증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6·25전쟁기념관 또는 박물관은 단순히 자료와 유물을 전시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6·25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며 그 참전용사들이 아직 생존해 있으므로 그들과 함께 6·25전쟁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참전용사와 함께 하는 6·25전쟁 기념행사가 될 것이다. 뉴욕에 설립되는 6·25전쟁기념관과 박물관은 자료를 수집 및 보존하는 도서관(Library)의 기능과 수집된 자료를 기록 관리하며 연구하는 아카이브(Archive)의 기능과 그리고 전시하여 알리는 박물관(Museum)을 동시에 하는 3가지 기능을 갖춘 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3가지 기능을 갖춘 기관을 라키비움(Lachiveum)이라 한다.<sup>15)</sup>

하지만 이러한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여 6·25전쟁 라키비움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이미 상당수 참전용사들이 90대에 들어선 이때에 하루라도 빨리 이들이 갖고 있는 유물과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라키비움의 기능을 하는 플랫폼으로서 우선적으로 사이버 상에 마련할 수 있다. 그 사이버 상의 6·25전쟁 라키비움을 위키백과 형식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림 21]은 6·25전

15) 해외동포 또는 해외 6·25전쟁 자료들의 보관 및 자원화 방법에 대해서는 주동완, 「해외 한인문화의 자원화 방안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2016.8 참조

쟁 사이버 라키비움의 한 예로 ‘이춘범의 6·25전쟁 컬렉션’ 위키백과를 간단히 만들어 본 것이다. 옆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이춘범의 6·25 한국전쟁 컬렉션’ 위키백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sup>16)</sup>

이렇게 우선 사이버 상의 위키백과와 같은 형식으로 6·25전쟁 라키비움을 만들어 6·25전쟁 자료와 참전용사들의 구술 자료들을 모아 놓고, 한인 커뮤니티의 자발적인 모금과 참여로 6·25전쟁 기념관 또는 박물관을 건립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에 미국에 진출해있는 한국계 기업들의 지원과 나아가 한국과 미국의 정부가 관심이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6·25전쟁을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이며 6·25전쟁 참전용사들에게 ‘감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진정한 ‘평화’를 향한 기념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6·25전쟁은 ‘잊혀진 전쟁’(Forgotten War)에서 ‘잊을 수 없는 전쟁’(Unforgettable War)으로 참전용사들은 물론 자라나는 한인 2세, 나아가 한국과 미국의 국민들 마음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16) 디지털자료 보존 방법에 대한 논의는 김현 외, 디지털인문학입문. HUEBOOKS. 2016. 참조.

<참고자료>

김 현, 김바로, 임영상. 『디지털인문학입문』. HUEBOOKS. 2016.  
주동완. 「해외 한인문화의 자원화 방안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국의  
국어대학교. 2016.8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웹사이트  
<http://koreanwar70.go.kr>

더 요크 디스패치 웹사이트.  
<https://www.yorkdispatch.com/>

시카고 트리뷴 웹사이트.  
<https://www.chicagotribune.com>

위키피디아. The York Dispatch.  
[https://en.wikipedia.org/wiki/The\\_York\\_Dispatch](https://en.wikipedia.org/wiki/The_York_Dispatch)

VOA. [뉴스풍경] 한국전 참전용사들 “한국전은 기억될 전쟁” 2019.6.28.  
Wikitree 웹사이트.

<https://www.wikitree.com>